

코로나 유행 정체...광주·전남 2만명대 '박스권'

이달 1만9266명 신규 확진...당국 "감소세 전환 지켜봐야"

이용섭 시장 "마지막 고비 잘 넘도록 중증병상 확보 주력"

감염속도가 가장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최대 확진 기록을 경신했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감소세 전환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점 단계에 머무르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6986명, 전남 1만 2280명 등 1만 9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은 3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2만명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연속 1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1일과 22일(0시 기준) 이를 연속 1만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광주에선 이날도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 중 10명이 숨지는 등 이날 들어 매일 10명 안팎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화요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큰 피해 없이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방역 및 의료 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위중증 환자의 병상 확보 등 병상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남은 이날 목포 2052명, 여수 2394명, 순천

2214명 순이었고 광주 937명, 무안 622명, 나주 585명, 화순 427명 등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가운데 28.1%인 3447명은 유·초중고 학생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확진자)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반장은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 수(35만 3960명)는 지난주 동일 요일 국내 확진자 수인 35만 2000여명 수준보다 미세하게 줄어든 수치로, 지난 주말부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만 유행이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급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점이 지난 이후 환자 발생 전망과 관련해선 "지난주부터 동네 병·의원 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면서 검사 역량이 증가했고,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훁도 올라가고 있어 감소세가 얼마나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 주차장에 마련된 교직원들을 위한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교직원들이 수시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있다.

손반장은 또 확진자가 국민의 20%, 1000만명에 도달하면 유행이 꺾인다는 예측에 대해선 "20%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은 아니며, 해외에서도 각각의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와 방역 대응에 따라 정

점 시기는 다양하다"며 "국내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이 향후 유행의 정점이나 감소 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실 이전 반대" 58% 전국 성인남녀 1018명 여론조사

국민의 58%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타모가 뉴스토타모 의뢰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조사한 결과, 윤 당선인의 직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58.1%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직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33.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95.1%가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 뜻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비율이 63.6%였고 25.4%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구례·곡성 수해 보상 갈등 2년 만에 해결

환경분쟁 조정으로 마무리...구례 448억·곡성 260억 등 732억 결정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수해를 당한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갈등이 2년만에 환경분쟁 조정으로 해결됐다. '반쪽 짜리' 배상이라며 반발했던 주민들이 지리한 소송전을 치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2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에 따르면 지난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구례·곡성·광양·순천지역 수해피해자 3608명을 포함한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3763억 5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례군은 1964명이 1137억 7500만 원을 신청했고, 곡성 1275명 822억3300만원, 광양시 228명 42억4700만원, 순천시 141명 31억 4200만원을 신청했다.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오며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실시한 첫 조정 사건이 됐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원안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상향했다.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에 따라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정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상향했다.

구례는 448억7200만원, 곡성 260억4200만원, 광양 11억1400만원, 순천 12억 2300만원 등으로 총 732억5100만원이 조정금액으로 결정됐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결정에 이의 신청 제기한 신청인 총 62명(구례 6명, 곡성 1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요양 병원·시설 감염 확산 4차 백신 대량 폐기될 듯

광주에서 계속되는 집단 감염으로 요양 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대거 확진 또는 격리되면서 이들에게 배정된 4차 접종용 백신이 대량 폐기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요양 병원·시설에 배정된 4차 접종용 백신의 사용 기한이 오는 25일 만료된다. 광주에는 지난달 21~25일 4차 접종용 백신 2584 바이알(병)이 배정됐다. 1병으로 6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만 5504명분에 해당한다.

화이자 백신을 해동해 냉장 보관하는 기간은 한 달 가량이어서 다가올 며칠 안에 쓰지 않은 백신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입·퇴원 현황이 시시각각 바뀌기는 하지만 방역 당국은 광주 요양 병원·시설 4차 접종 대상자를 1만 6604명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접종을 마친 인원은 21일 0시 현재 5841명(35.2%)에 그친다. 다수 병원,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격리자들이 접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접종이 거둬지고 전국적으로 수시만능 확진자들이 거듭되면서 4차 접종에는 참여율도 전만 못하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사용 기한 만료 전까지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 절반 이상은 폐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이 필요한 다른 곳에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수급이 원활한 상황에서 사용 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신 공급을 원할 리도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요양 병원 등 집단 감염이 심해 많은 양의 백신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급적 접종을 유도해 폐기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본 사 인 사	
▲ 정숙진 : 지역담담본부장	▲ 최권일 : 편집국 정치부 부국장
▲ 윤현서 : 편집국 정치부 부국장	▲ 윤영기 : 편집국 특집·체육부 부국장
▲ 나리주 : 편집국 사단부 부국장	▲ 최현배 : 편집국 예방부 부국장
▲ 마성만 : 편집국 편집1부 부국장	▲ 김용환 : 편집국 편집1부 부국장
▲ 박성현 : 편집국 문화부 부국장	▲ 김대성 : 편집국 제2사회부 부장
▲ 김지을 : 편집국 정치부 부장	▲ 박진표 : 편집국 정치부 부장
▲ 오광록 : 서울취재본부 부장	▲ 임중현 : 경영지원국 총무부 부국장
▲ 진판용 : 경영지원국 총무부 부국장	▲ 임동춘 : 경영지원국 출판부 부장
▲ 박종국 : 경영지원국 출판부 부장	▲ 윤석 : 문화사업국 부장
▲ 원준희 : 문화사업국 부장	

(3월 23일자)

임아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급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부동산 매매

<p>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권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p>	<p>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권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p>
<p>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p>	<p>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제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p>
<p>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p>	<p>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p>
<p>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p>	<p>동구 지상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p>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대지 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피상속인: 망 김원희(570415-XXXXXX)
최후추소: 광주 동구 소매점3동길 47-4(소매동)
피상속인 망 김원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심판결정을 광주가정법원 2022조가3074호로 신청하여 2022년 3월 18일 심판 인용됨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방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23일

상속인 1. 박소영(570307-XXXXXX)
2. 박은영(810415-XXXXXX)
3. 박미영(820822-XXXXXX)
4. 박인영(831017-XXXXXX)
5. 박소영(960907-XXXXXX)

신용인 15주소 광주 동구 전라대로40번길 13-1(백운동)
· 신고기간: 2022. 3. 23. ~ 2022. 6. 2.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4. 박인영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중공고)

주식회사 케이에스테이트(이하 "케이")의 원천인인 주식회사 위트(이하 "위트")는 2022년 3월 17일 각자의 임의주주총회에서 "케이"의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케이"와 분할합병하고 "케이"를 존속하며, "케이"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케이"에 승계하고, 합병 제530조의3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이의가 있는 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한다.

2022년 3월 23일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광주-01084)
"케이" (양도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테이트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 11층 1115호 (인천동, 흥화빌딩)
사내이사 김 지 우
"케이" (양수인) 주식회사 위트
대전광역시 동구 상변로1267번길 50-4(남일동) (만정동종합빌딩)
사내이사 김 중 희

산행안내

3월27일(일)

▲광주서산악회 3월27일(일) 충북대양(제비문)구만봉·육순봉·홍명대(노스페이스)탐방길 "전도트레킹"스카이워크산행 *업무채워준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누차점05:30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판 결 공 시

· 제1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경24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피고인 : 김선봉

· 위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3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 나 래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익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03월 2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50,000,000원 중 금49,000,000원정액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총액은 금1,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현재 각 사원이 소유하고 있는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아 강제 소각하여 출자의 좌수를 5,000좌에서 100좌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유한회사 신진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30(소촌동)
이사 나 하 수

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김홍규(361214-XXXXXX)
최후추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1길 21, 102동 302호(서성리, 건우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홍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2년11004호로 신청하여 2022년 3월 15일 심판 인용됨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방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23일

· 상속인 : 김학현(591010-XXXXXX)
전주시 덕진구 아중원1길 36-8, 202호(산전동, 반야빌라)

· 신고기간 : 2022. 3. 23. ~ 2022. 6. 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학현의 주소

70년을 밝힌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통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동 구	· 광 통 525-3761	· 신 통 222-8171
남 구	· 문 통 571-7658	· 오 통 266-7601
서 구	· 통 통 433-1503	· 문 통 433-1503
광 산 구	· 남 통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통 225-6001	· 중 통 222-9054
	· 중 통 222-8171	
	· 남 통 673-6836	· 백 통 651-1833
	· 남 통 673-6836	· 송 통 675-6605
	· 전 통 671-7276	
광 산 구	· 광 통 382-5788	· 신 통 372-2352
	· 사 통 369-1625	· 문 통 376-7153
	· 치 통 376-6511	· 문 통 603-0311
	· 화 통 369-1625	
광 산 구	· 문 통 952-1687	· 힐 통 959-1920
	· 청 통 973-2900	· 하 통 955-0451
	· 광 통 944-0444	

光州日報

구독문의

신문

예향

220000055510